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5호 【루계 제22977호】 주체99(2010)년 1월 25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67대련합부대의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67대련합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대장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대련합부대 지휘관들과 돼지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5만여m^2의 넓은 부지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돼지공장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최전연군인들에게 안겨주신 은정어린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사료가공으로부터 먹이 및 물공급, 돼지우리의 온습도조절 등 모든 공정들이 콤퓨터에 의하여 움직이는 돼지공장에서는 지금 많은 고기와 고기가공품을 생산함으로써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병사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하루빨리 실현할 일념에 불타는 대련합부대의 장병들은 자체의 힘으로 돼지공장의 방대한 건설공사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돼지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능력이 큰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병사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할 만년대계의 축산기지를 짧은 기간에 건설한 군인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종업원들이 과학적인 생산체계를 세우고 먹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사료를 절약하면서도 많은 고기를 생산하고있는데 대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돼지의 부산물들을 가지고 만든 갖가지 가공품들을 보시고 부산물들을 모조리 회수리용하여 부위별에 따르는 질좋은 각종 고기가공품을 많이 생산하여 군인들에게 공급하고있는데 대해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고기가공품을 공급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의 수호자이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인 인민군군인들은 무엇을 하나 건설해도 만년대계로 알뜰하게 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기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의 열렬한 애국심과 깐진 살림살이기풍을 거듭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에서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것만큼 관리운영사업을 잘 짜고들면 돼지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기간에 도달해야 할 생산목표를 정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에 사회와 군대에서 일떠세운 돼지공장들은 과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설계되고 건설되였으며 공고한 사료원천에 의거한 실용성있는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축산물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기르고있는 돼지들의 생리적특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고기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사료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는 우량품종을 기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과학적인 경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양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며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근기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축산물생산을 늘이는데서 수의방역사업은 특별히 중요하므로 방역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사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먹이문제를 자체로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함주돼지공장, 평북돼지공장을 비롯한 최근년간에 건설된 돼지공장들에서 유기질복합비료생산공정을 잘 꾸린 결과 질좋은 거름을 많이 내여 부속농장들의 알곡소출을 비약적으로 높였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실천적경험은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것이 먹이문제해결의 근본열쇠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대의 돼지공장들에서도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된 이 귀중한 경험을 적극 받아들여 부속농장들에 유기질복합비료를 많이 보내줌으로써 정당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주변에 풀판을 더 많이 조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돼지가죽은 중요한 공업원료이므로 모조리 회수하여 군인들의 생활필수품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우리 나라에는 우량종새끼돼지들을 충분히 생산공급할수 있는 정연한 원종체계가 확립된것을 비롯하여 돼지고기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고 하시면서 이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돼지기르기를 대대적으로 벌림으로써 조국보위의 전초선에서 헌신하고있는 우리의 군인들에게 보다 풍성한 식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대련합부대의 전체 장병들과 돼지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쳐갈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8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2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네팔공산당 (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네팔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민족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이란정당들의 집중앙리사회 위원장,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 위원장, 로씨야련방 련방회의 국가회의 부의장인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스웨리예의 공산당 위원장,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민주꽁고 진정한 루뭄바주의애국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에짚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도미니까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총비서, 도미니까근로자당 위원장, 도미니까근로자력량당 위원장, 도미니까사회주의당 위원장, 도미니까 새 로선당 공동위원장들, 도미니까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뻬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또한 캄보쟈왕국 정부 부수상겸 국방상,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전 쏘련국방상, 지중해개발은행 리사장인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국제김일성기금》 리사장, 로씨야 엔. 에쓰. 나제쥬지나명칭 국립아까데미야 《베료즈까》 무용단 단장과 지배인, 로씨야 이고리 모이쎄예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무용단 지배인,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까데미야협주단 단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지 및 련대성동유럽쎈터 위원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네팔, 만마, 몽골, 방글라데슈, 파키스탄, 일본,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벨라루씨, 스위스, 스웨리예,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뽈스까,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슬란드, 이딸리아, 에스빠냐, 나이제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민주꽁고, 에짚트, 에티오피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뻬루, 에꽈도르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대표들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전문과 편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8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2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희세의 령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모신것은 조선인민군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전문과 편지들은 지적하였다.

전문과 편지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의 혁명생애는 수령결사옹위로 빛나고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진 투쟁과 헌신의 한생이였다고 하면서 전문과 편지들은 녀사께서는 만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지적하였다.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은 전문과 편지들에서 선군혁명위업과 인류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수령결사옹위의 모범을 따라배워

자성군 관평리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높이 발휘하신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간고한 항일전의 나날에나 새 조국건설의 시기에나 변함없이 친위전사로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도서들을 가지고 독보와 연구발표모임을 자주 조직하여 그 실효를 높이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옥선

영웅적인 투쟁전통을 이어 더 높이, 더 빨리!

올해공동사설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는 영웅적인 군대이며 인민이라고 지적되여있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년대기마다, 특히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 제2차 지하핵시험 성공, 녕원발전소 완공, 현대적인 대형산소분리기생산 등 대혁신, 대비약으로 승리떨친 지난해 투쟁성과에 대한 위대한 총화이기도 하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대문을 열어제낄 결사의 각오를 안고 힘차게 내짚은 선군조선의 장엄한 진군은 그대로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한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의 강의한 혁명정신과 남들이 100년이 걸려도 이룩하지 못한다고 하던 사회주의공업화를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현한 영웅적인민의 불굴의 투쟁기풍의 위대한 계승이다.

이 시각에도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철저히 관철하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 투쟁의 구호를 높이 부르며 우리의 영웅적군대와 인민이 련일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높은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였습니다.》

천만군민모두를 영웅으로!

여기에 바로 위대한 정치가, 탁월한 군사전략가, 자애로운 어버이로 만민이 흠모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웅적위인상이 있다.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여 값있는것은 아니다!

사람은 한순간을 살아도 영웅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듯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일찍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삶을 안겨주시기 위해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전국영웅대회를 앞두고 온 나라 전체 군민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주시던 20여년전의 잊지 못할 그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될것을 요구하며 또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영웅이 될수 있다. 지난날 착취계급사회에서는 비범한 기질을 가진 걸출한 사람만을 영웅이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웅은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세운 위훈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는 비범한 기질을 가진 사람뿐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다 영웅이 될수 있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민대중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국을 보위하는 싸움에서 전투영웅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로력영웅, 시대의 영웅으로 될수 있다는 주체의 영웅관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영웅적위훈창조의 길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그 나날 《90년대의 김진, 리수복이 되자!》라는 구호밑에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여 우리 나라 건설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전쟁시기도 아닌 평화적시기 전우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은 실로 영웅적이였다.

령도자의 영예는 자기가 영웅칭호를 받는것보다 영웅을 많이 키워내는데 있다는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실천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은 이미 력사에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주체84 (1995) 년 1월 1일 새해를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가자는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여 전체 군민을 새로운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주시고 몸소 그 투쟁의 앞장에서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찬란히 수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최전연고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로 적들을 아연케 하신 백전로장의 영웅적기상과 함께 조성된 정세에 대한 명철한 판단과 비범한 선견지명으로 경제활성화에 앞서 총대를 틀어쥐시고 군력을 강화하신 천하제일명장의 위대한 영웅적풍모가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나라에는 위대한 영웅이 있고 위대한 영웅이 있는 나라에서는 언제나 영웅적사변들이 일어나며 온 사회에 영웅의 기상이 차넘치게 된다.

준엄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수령이 위대한 영웅이면 당도 영웅의 당으로 되고 나라도 영웅의 나라로 되며 민족도 영웅의 민족으로 되고 인민도 영웅의 인민으로 된다는 진리를 체험하였기에 오늘 우리 인민이 부르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찬가 그리도 뜨겁고 열렬하고 환희로운것이다.

비내리는 진창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군인들의 건설장을 찾으시여 온 나라에 혁명적군인정신의 세찬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시였으며 자강땅인민들과 함께 강행군을 하시며 고난극복의 만능의 보검인 강계정신을 창조하시여 시대정신으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자욱을 떠나 결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와 함께 이 땅에 줄기차게 이어지는 영웅적투쟁력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천만군민모두를 영웅으로 키워 그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5월 대흥땅을 찾으시여 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창조한 기술적진보는 참으로 자랑할만 한 영웅적위훈이라고 하시면서 광산의 이름을 대흥청년영웅광산으로 명명해주신것 아니였던가.

지난해 6월 25일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한 위대한 선군령장의 확고부동한 신념의 호소가 지금도 우리의 흉벽을 쾅쾅 울려준다.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수령님의 전사, 제자인 우리 인민의 숭고한 의리이다.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자면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천리마대고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거세찬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

천리마대고조의 전통!

이는 전후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불굴의 신념과 결사의 의지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영웅적인 투쟁전통이며 주체조선의 영원한 비약과 전진의 강위력한 무기이다.

그렇듯 위대한 전통으로 이 땅우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온 나라 방방곡곡 가는 곳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오늘의 대고조는 그대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꿋꿋이 이어주신 영웅적인 투쟁전통으로 승리떨쳐가는 장엄한 진군이다.

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랜 기간 공장에서 일해온 로력영웅들을 만나시여 그들이 발휘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평가하시고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으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성강의 로동계급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강철로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보위하여온 참으로 영웅적인 로동계급이라고, 앞으로도 이 빛나는 투쟁전통을 계속 옹호고수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영웅적군대와 인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영웅적조선인민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력사와 민족앞에 지닌 사명을 깊이 간직하고 오늘의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자!

이것이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이거니 바야흐로 력사는 강성대국으로 빛나는 영웅조선의 위대한 승리를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성국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자들은 상상밖의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남조선괴뢰국방부 장관이라는자는 지난 1월 20일 《국방개혁과 남북관계전망》이라는 공개토론회에서 북의 그 무슨 《핵위협》에 대처하여 필요할 때에는 《선제타격》할것이라고 폭언하면서 괴뢰군의 이와 같은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토설하였다.

그로 말하면 2008년 3월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내정 《국회인사청문회》라는데서 우리의 핵기지들을 정밀유도무기로 《선제타격》할것이라고 줴친바가 있는자이다.

이런자가 국방부 장관자리에 올라앉아 또다시 《선제타격》폭언을 공공연히 늘어놓은것은 그 어떤 실언이 아니라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괴뢰당국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괴뢰국방부 장관의 이번 폭언을 두고 남조선언론들까지도 《부적절한 〈선제타격〉발언》,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 《잘못된 주장》이라고 우려와 조소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괴뢰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폭언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6.25의 참변이 되풀이될지 모를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원칙적립장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1.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남조선괴뢰당국이 《국책》으로 내세운 《선제타격》론을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다.

2.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남조선괴뢰당국의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서도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적이고도 단호한 군사적행동으로 지휘의 중심을 비롯한 중요대상물들을 송두리채 들어낼것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하지만 괴뢰들의 반북대결책동을 우리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자들은 상상밖의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만단곡경을 다 겪으며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혁명무력은 단숨에 필요한 대상을 일격에 타고앉을 무진막강한 군사적힘을 가지고있다.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며 함부로 입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99 (2010) 년 1월 24일
평 양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적군중규률을 유격대의 철칙으로 세우시고

고 현 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군민일치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해주시였다.

그 나날에 꽃피여난 군민일치의 미풍에 대한 가슴뜨거운 무수한 이야기들은 아무런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간고한 조건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100만대군과 맞서 싸워이길수 있은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무엇인가를 생동한 사실로 보여주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내가 소왕청유격구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중의 하나이다.

주체22 (1933) 년초에 유격대에 입대한 나는 왕청2중대에서 작식대원으로 공작하게 되였다.

험난하고 간고했던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언제나 그러하였지만 그때에도 식량문제는 유격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중의 하나였다.

유격구창설초기만 해도 식량문제는 유격구와 적통치구역사이에 있는 중간지대들에서 농사를 지어 적지 않게 해결하였다.

그리고 적의 후방물자수송대를 치거나 식량창고를 털어 해결하기도 했고 반유격구의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식량을 사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 일제는 갓 창설된 유격구를 그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봉쇄정책을 쓰면서 한알의 식량도 유격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착하게 단속하였다.

그리하여 미리 장만하였던 겨울나이식량을 다 소비한 다음에는 많은 유격대원들이 적통치구역에까지 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식량공작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식량난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였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작식대원들의 고충이 더하였다.

더우기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왕청 셋째섬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중대에 자주 내려오시였는데 오실 때마다 그이께 풀죽밖에 쑤어드릴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럴 때면 우리 작식대원들은 속이 한줌만해서 얼굴조차 쳐들지 못하고 한쪽구석에 가앉아 눈굽을 적시였으며 중대지휘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고 가슴을 두드리며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또 유격대원들이 다문 얼마간의 낟알이라도 얻어오기 위해 수십리길을 다녀오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중대에서는 두명의 대원을 적통치구역에 식량공작을 내보냈다.

당장 가마에 맹물을 끓여야 되였던 나는 다문 얼마의 낟알이라도 꼭 구해오라고 떠나는 그들을 붙잡고 신신당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적들의 경계가 하도 심하여 좀처럼 식량을 구할수 없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중대에서는 지금쯤 우리가 식량을 구해가지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있겠는데…)

하지만 임무를 받고 떠나올 때 언제까지 돌아오라는 정해준 날자가 있어 그들은 하는수없이 그대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돌아오는 두 대원의 발걸음은 천근같이 무거웠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자기들을 보고 실망할 동무들을 생각하니 그들은 눈앞이 다 아뜩해졌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가을한 감자밭을 하나 보게 되였다.

산비탈 나지막한 언덕받이에 남의 눈을 피해 심어놓은 감자밭인데 때가 때인지라 겨울을 난 밭에서 이삭주이를 할 감자 한알 찾아볼수 없었다.

그렇지만 걱정을 안고 돌아오던 그들에게 그것은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었다.

(여기서 언감자 몇알이라도 주어가지고 가자.)

그들은 아직도 녹지 않은 언땅을 뚜지며 한알두알 언감자를 캐나갔다.

그러다가 그들은 감자밭 한 모퉁이에서 우연히 감자움을 발견하였다.

이 일대의 농민들이 추위가 닥치기 전에 서둘러 감자를 캐서는 밭머리에 묻어놓았다가 후에 가져가려고 만들어놓은 감자움인데 미처 다 실어못가고 아직도 적지 않은 량의 감자가 남아있었다.

뜻밖의 《횡재》에 그들은 너무기뻐 환성을 올리다가 서둘러 감자임자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방 둘러봐야 인가는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길손들도 없는 무인지경에서 감자임자를 찾는다는것은 막연하였다.

언제 나타날지도 모를 그 임자를 무한정 기다리고있을수도 없는 일이였다.

하는수없이 두 대원은 감자를 한짐씩 걸머지고 중대로 돌아오고말았다.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쩌나 하고 속이 한줌만해서 기다리던 우리 작식대원들은 감자배낭을 받아안고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때마침 우리 중대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와계시였는데 그이께 감자라도 대접해드릴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그들의 식량공작이 위대한 수령님께 커다란 걱정을 끼쳐드릴줄 어떻게 알았으랴.

그날 중대사업을 지도하시다가 중대장을 통하여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 식량공작을 나갔다온 두 대원을 부르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감자를 구해가지고 오게 된 경위에 대해 다시금 구체적으로 물어보시였다.

대원들은 식량공작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감자를 지고오게 된 자초지종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더니 따뜻하면서도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물론 굶고있을 중대성원들을 생각하여 그리고 감자움의 주인을 찾아갈 형편이 못되여 감자를 거저 가져오게 된 동무들의 심중을 충분히 리해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격대에는 어떤 역경과 환경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엄격한 규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혁명적군중규률입니다.

그러시고는 우리가 식량을 해결하는데서 적군의 후방물자들을 빼앗거나 친일지주들의 식량은 몰수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인민들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된다, 물론 인민들로부터 식량을 구입할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그 값을 후하게 치러주어야 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고 유격대안에 세워진 이러한 혁명적규률은 나나 동무들이나 그 누구를 물론하고 추호도 어길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제서야 자기들이 실책을 범했다는것을 느끼게 된 대원들은 머리를 떨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식량사정이 좀 어렵다고 하여 인민들의 재산에 손을 댄다면 우리가 무슨 인민을 위한 군대이고 혁명을 위한 군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인민들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것을 허용한다면 유격대는 인민대중의 지지성원을 받을수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결국 군중적지반을 잃고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할 때 어느 한순간도 인민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유격대의 명칭속에 《인민》이라는 고귀한 두 글자를 반영한것이며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혁명적구호를 내건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굶어죽고 얼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인민들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인민의 아들딸들로 구성되여있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유격대의 철칙입니다.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심중한 결함을 범했는가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렸다.

《장군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군중규률을 위반한 저희들은 유격대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처벌해주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함을 진심으로 깨달았으면 됐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자움의 주인을 꼭 찾아서 감자값을 후하게 치러준 다음 깊이 사과하고 돌아오라고 과오를 시정하기 위한 방도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나온 그들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듣고 나는 실로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설사 굶어죽고 얼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인민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고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서의 항일유격대의 철칙임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넣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유격대의 군중규률이 얼마나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는가를 나는 감자값을 치러주고 돌아온 동무들을 통하여 잘 알게 되였다.

두 대원은 감자움의 주인을 찾아 다시 떠났다.

적 《토벌대》와 밀정들이 곳곳에서 싸다니고 놈들의 경계가 이만저만 아니였지만 그들은 감자움부근의 숲속에 몸을 숨기고 감자임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하루가 지나고 또 다음날 어둠이 깃들도록 감자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그들은 그전에 련계가 있던 부근마을의 반일회조직성원을 찾아가 전후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그 감자밭임자를 꼭 찾아줄것을 간절히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반일회조직을 통하여 끝내 그 감자움주인을 만나게 되였다.

감자움주인은 감자값을 내놓으며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사죄하는 두 대원을 보고 펄쩍 뛰였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도 농민협회 성원인데 유격대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산에서 고생하는 유격대원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도리여 감자값을 받다니 그게 어디 될말인가고 하면서 그는 한사코 감자값을 사양하였다.

두 대원 역시 인민의 재산을 털끝만치도 다쳐서는 안된다는것은 장군님께서 세우신 우리 항일유격대의 규률이라고 하면서 양보하지 않았다.

끝내 감자값을 받게 된 주인은 떠나는 대원들에게 감동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정말 자네들이야말로 우리 백성들을 위한 인민의 군대일세. 김일성장군님유격대를 위해서라면 내 무엇을 아끼겠나. 부디 고맙다는 인사를 장군님께 전하여주게.》

유격대에서 감자값을 보내여왔다는 소식은 삽시에 그 일대 인민들속에 퍼졌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우리 중대에서는 군중규률을 위반하는 일이 한번도 없었으며 항일유격대의 모든 부대들에서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지키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게 되였다.

혁명적군중규률이 철저히 세워짐으로써 우리 유격대는 인민들의 적극적인 신뢰와 지원을 받으며 일제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유격구를 몇년동안이나 사수할수 있었으며 불패의 력량으로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에 유격대오안에 세워주신 혁명적군중규률의 고귀한 전통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군민일치의 화원으로 더욱 활짝 꽃피고있다.

군대와 인민이 혈연적관계로 한마음한뜻이 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과 군대를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각 지 농 촌 들 에 서

협동벌에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

연백벌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나라의 곡창지대의 하나로 그 이름 자랑높은 연백벌에 총공세의 열풍이 휘몰아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배천군 수원농장과 금성협동농장, 연안군 오현, 천태협동농장, 청단군 청정농장벌에 가보아도 좋고 대규모의 토지정리작전이 펼쳐지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시였던 농장벌들을 비롯한 그 어느 농장벌에 가보아도 좋다.

승리의 축포가 오를 10월의 대축전장을 그려보며 새해 공동사설의 호소에 실천으로 화답해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온 연백벌이 세차게 끓어번지는 속에 수십만t의 거름이 포전에 나가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중적운동으로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땅을 걸구어야 합니다.》

연백벌에 나래치는 총공세의 열풍, 그것은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여 10월의 광장에 기어이 만풍년의 농악소리 높이 울리려는 연백벌사람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새해 첫 전투의 날 아침, 연안군과 배천군, 청단군 소재지에서 여러 농장으로 뻗어간 도로들에는 일찌기 볼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다. 적재함이 넘쳐나게 거름을 가득 싣고 달리는 뜨락또르들의 동음, 거름을 지고 포전으로 향하는 일군들과 농장원들, 지원자들의 행렬…

온 연백벌이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는 속에 포전들마다 거름더미들이 시간을 다투며 늘어났다. 드넓은 대지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지만 연안군 라진포, 소아협동농장벌들은 더욱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농장안의 청년들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는 응당 자기들이 서야 한다고 하면서 분발해나선것이였다. 수백명의 청년들이 거름짐통을 지고 달리는 농장벌은 싸우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바로 그 시각 발산협동농장의 청년들이 지켜선 니탄캐기전투장도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한겨울의 강추위는 청년들의 의지를 시험하려는듯 온 대지를 땅땅 얼구었다. 하지만 니탄캐기전투에 떨쳐나선 청년들의 이마에서는 땀이 마를새없이 흘렀다. 승리의 기쁨안고 10월의 광장에 떳떳이 들어서려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로 하여 전투장마다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쳤다. 이렇게 시작된 거름실어내기와 니탄캐기전투는 다음날에도 계속되였다.

배천군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용기백배하여 흙보산비료생산전투를 벌려나갔다.

10만여t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는것, 이것이 군일군들이 내세운 목표였다. 이 방대한 목표를 수행하자면 흙보산비료생산의 기본원료인 니탄을 해결해야만 하였다. 례년에 없이 두텁게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고 니탄을 캐낸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때 군책임일군의 격동적인 목소리가 일군들의 심장을 울리였다.

《우리 일군들이 혁신의 앞장에 서야 대중이 따라섭니다.》

결심을 굳힌 일군들은 아무리 조건이 불리하고 과제가 방대하다 해도 물러설수 없다고 하면서 니탄캐기와 부식토생산을 늘여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이렇게 시작된 니탄캐기와 부식토생산전투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였다. 금성, 신월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니탄캐기전투에서 남먼저 기발을 들자 물길, 일곡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부식토생산에서 기세를 올리였다. 니탄캐기와 부식토생산전투장마다에서 총공세의 열풍이 세차게 나래치기 시작하자 군안의 농업부문 기술자들이 흙보산비료생산의 성과여부가 자기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면서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나갔다.

배천군에서 니탄캐기와 부식토생산성과가 확대되면서 흙보산비료생산의 보다 밝은 전망이 열리던 그때 청단군 일군들과 농장원들, 로동자, 사무원들도 거름생산전투에 떨쳐나 혁신적성과를 창조해나갔다.

청정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거름더미이자 쌀더미라고 하면서 질좋은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본때를 보이자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도 사회주의경쟁을 선포하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거름생산전투장마다 혁신의 기상이 약동하는 속에 거름더미들이 계속 늘어나고 포전길에서는 각종 유기질비료를 실은 륜전기재들의 발동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리였다.

20여일동안에 근 100만t의 거름을 생산,

이 자랑찬 성과는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진 땅에 만풍년의 가을을 펼치고 10월의 하늘가에 승리의 개가를 올리려는 연백벌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지원자들의 비상한 각오와 완강한 실천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한겨울의 찬바람이 기승을 부리지만 주공전선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끼려는 이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연백벌은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세차게 나래치는 총공세의 열풍, 그것은 알곡증산성과로 당창건 65돐을 긍지높이 맞이하려는 연백벌사람들의 신념과 의지의 열풍, 래일의 승리에 대한 락관의 열풍인것이다.

본사기자 김창길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여

구성시 남창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제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설이 실린 당보를 받아안고 올해농사작전을 펼치던 구성시 남창협동농장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자면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하여 농장일군들은 지난해 알곡생산에서 첫자리를 차지한 제1작업반에 내려가 농사경험을 분석해보았다. 이 작업반에서는 지난해 새로운 영농방법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마른써레치기를 하여 종전보다 기름을 훨씬 절약하면서도 그 기일을 앞당긴것, 새로 만든 이랑짓는기계를 리용하여 많은 영농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본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낸것은 본받을만한 경험이였다.

모든 작업반들에서 이 단위처럼 새로운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높이 세운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할수 있을것이였다. 농장일군들은 진지한 토의끝에 제1작업반의 농사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경험발표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느때와는 달리 모든 작업반초급일군들만이 아니라 농사경험이 많은 농장원들까지 참가시키도록 하였다.

이처럼 빈틈없는 준비밑에 진행된 경험발표회의 실효는 컸다.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새 영농방법을 원리적으로 인식하고 실천에 도입하는데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에 대해 환히 알게 되자 저마다 받아들이겠다고 결의해나섰다.

《모두가 과학농사의 주인이 될 때 올해에 본보기농장들의 알곡생산수준을 돌파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합시다.》

기사장의 호소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후 새로운 영농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모든 작업반들에서 타올랐다. 기술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새로운 영농방법의 우월성과 기술적요구를 배워주기 위한 사업을 알심있게 진행해나갔다. 여러가지 좋은 영농방법들에 대한 기술학습이 진행되면서부터 농장원들은 과학농사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제6, 4작업반을 비롯한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이랑짓는기계를 만들기 위해 떨쳐나섰다.

농장의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었다.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자재를 해결하는 등 어려운 일감을 도맡아나섰다. 일군들이 앞장에 서니 대중이 발동되고 대중이 발동되니 자체의 힘으로는 어렵다던 문제들이 척척 풀려나갔다. 작업반들에서는 또한 거름과 흙보산비료 등 각종 유기질비료를 질적으로 생산하여 실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이미 많은 질좋은 거름이 논밭에 실려나갔고 거름생산이 중단없이 진행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우월한 모기르기 및 모내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판자리들을 번듯하게 닦아놓고 말장구뎅이들을 파놓았으며 중소농기구준비도 빈틈없이 해놓았다.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농사차비에서는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주공전선의 전투원들답게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평원군 원화협동농장벌에 혁명적대고조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명예농장원으로 높이 모신 영광의 땅은 새해 공동사설과 김철로동계급의 편지를 받아안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투쟁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은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어느 한 포전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전화의 나날에 몸소 찾아오시여 밭도 갈고 두엄도 놓으시며 씨앗을 뿌려주신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 포전에서 발길을 뗄줄 몰랐다. 문득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포전을 지나가실것만 같은 생각에 그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끓어번졌다. 그 포전에서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모임을 열고 이런 심장의 맹세를 다졌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원화리사람들의 본때를 보이자.

농업전선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대풍작을 안아오는것으로써 보답할 신념의 맹세가 이른아침의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쳐갔다.

높이 세운 목표대로 두벌농사포전은 물론 모든 포전들에 정보당 50t씩의 질좋은 거름을 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거름을 듬뿍듬뿍 싣고 뜨락또르와 자동차들이 포전으로 달리였다. 농장일군들로부터 농장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땀을 흘리며 뛰고 또 뛰였다. 집집마다에서 물거름과 진거름도 퍼내고 퇴적장의 질좋은 거름도 포전으로 실어냈다. 작업반들마다에서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를 꾸려놓고 생산을 더욱 늘이였다. 낟알짚과 북데기, 마른 풀들을 모조리 모아들여 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전투가 농장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벌어졌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농장에서 니탄캐기전투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은 청년들이 일군들을 찾아왔다.

《니탄캐기전투의 앞장에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십시오.》

리상이 높으면 힘도 갑절 생기는 법이다. 농장에서 수십리 떨어진 니탄캐기전투장으로 달려나간 청년들과 농장원들은 한덩어리의 니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억척스럽게 일손을 놀리였다.

1월의 맵짠 추위와 몰아치는 눈보라도 올해에 기어이 농업전선에서 승리의 포성을 울리고 위훈자의 영예를 떨치려는 이들의 굳센 신념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였다.

농장에서는 은정깃든 자동차, 뜨락또르를 리용하여 수백t의 니탄을 운반하는 놀라운 혁신을 창조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니탄캐기전투장에서만 타오른것이 아니였다. 준엄한 전화의 날 몸소 농민들과 함께 씨앗을 뿌리시며 전시식량증산투쟁에로 불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있는 제1작업반포전에서도 총공세의 불길이 타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쌀로써 받드는 선군시대 애국농민이 될 불타는 마음을 안고 결의모임을 가진 제12작업반원들은 열두바닥을 파내면서 기세를 올렸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이 주저없이 뛰여들며 《나를 따라 앞으로!》의 돌격구령을 힘차게 내렸다. 하루에 120여t의 거름이 생산되였다.

제8작업반과 제3작업반의 농장원들도 군소재지까지 수십리길을 오가며 도시거름과 진거름을 날라왔다. 불타는 열정은 혁신을 낳았다. 농장적으로 짧은 기간에 수천t의 거름이 포전에 실려나갔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새로운 변이 나는 해로 되게 할 확고한 신념과 불타는 열정을 안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하여 원화벌은 날이 갈수록 농사차비로 더욱더 끓고있다.

본사기자 김순홍

수필 1월의 열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참된 혁명가의 풍모는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한해중 제일 추운 1월이다. 땡땡 얼어붙은 대지, 세차게 불어치는 칼바람…

하지만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찾았던 나는 대소한의 강추위를 몰아내는듯 한 뜨거운 열풍을 온몸에 느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였다.

내가 청년작업반에 들어섰을 때였다. 거름실어내기전투장은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강추위속에서도 웃동을 벗어제끼고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걸이대질을 힘차게 하고있는 청년들, 질통을 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달리는 초급일군들…

작업반장이 휴식— 하고 거듭 소리쳤건만 누구 하나 일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작업반원들의 열정넘친 모습을 보며 선듯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나에게 작업반장은 이렇게 말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1월의 전투가 이렇게 드세차게 벌어지고있는것입니다.》

참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였다.

미곡협동농장이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계속 선봉적역할을 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

지난해에 또다시 농장을 찾으시여 한해농사의 시작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례년에 없는 풍작을 마련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켜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그 사랑과 믿음이 바로 이들의 심장에 식을줄 모르는 열정의 불길을 지펴준것이 아닌가.

어찌 이들뿐이랴.

지난해 동해안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른 함주군 동봉리사람들을 비롯한 온 나라 농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한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처럼 정초부터 대고조시대의 진군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문득 취재길에서 만났던 열두삼천리벌의 한 농장원이 나에게 한 말이 생각났다.

《1월의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면서 백배의 힘과 용기가 샘솟아 기어이 풍년가을을 안아올 한마음으로 심장을 끓이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 지펴주신 대고조진군의 봉화는 료원의 불길마냥 협동벌에 거세차게 타올라 우리 농장원들의 가슴가슴을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 열정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천리길도 한걸음으로 시작되듯이 뜻깊은 올해의 1월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산악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폭풍치며 내달리는 열정과 락관이 넘치는 1월이다.

주공전선에 나래치는 1월의 열풍,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이 땅에서 나는 우리의 오곡백과로 우리의 식탁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하나의 지향이 낳은 승리의 서곡이 아니랴.

본사기자 박철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자각안고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회령시 오봉리에서— 본사기자 찍음

목표를 높이 세우고

경원군 하면협동농장에서 질좋은 거름을 지난해보다 2배이상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앞장에 서서 원천을 찾아내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그리고 많은 낟알짚들을 집짐승우리에서 밟혀내게 하면서 북데기를 가지고 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하게 하였다.

어느 작업반이나 거름더미들이 높이 솟기 시작하였다.

농장에서는 거름생산에서 앞장선 농장원들과 가정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여 열의를 더욱 높여주면서 거름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진정에는 진심이 따른다

경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민심을 틀어쥐고 민심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할 우리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행증》은 진심이다. 지난해 8월까지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고 탄광사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경성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여야 하며 그들이 언제나 당을 믿고 당조직에 스스로 찾아올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탄광마을에 땔감이 떨어진 집은 없는가. 어느 탄부의 얼굴에 그늘이 지지는 않았는가. …

이것은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늘 안고사는 마음속걱정이다. 2갱의 김동무를 비롯하여 여러명의 탄부들이 살림집때문에 불편을 느끼고있을 때였다. 이것을 알게 된 초급당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생활상애로를 애써 감추면서도 꿋꿋이 탄발을 지켜가는 탄부들, 그들을 위해 무엇을 아끼랴.

초급당일군의 속생각을 넘겨짚은 지배인 박덕봉동무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아무리 생산이 긴장하여도 탄부들의 생활상문제보다 더 긴박한 일은 없다고 하면서 일군들은 마음을 합쳐 짧은 기간에 살림집을 건설하여 탄부들에게 배정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1갱 굴진공장동무와 2갱의 리동무를 비롯한 탄부들속에서 제기되는 자그마한 생활상고충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탄부들은 초급당일군들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다. 그렇다고 하여 초급당일군들이 눈먼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우고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한때 손동무의 지난 기간 생활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지어 그는 일부 일군들의 눈밖에까지 났었다.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손동무에게 사랑을 주고 정을 주면 얼마든지 훌륭한 탄부로 키울수 있다고 생각한 초급당일군은 그의 생활을 더 따뜻이 돌봐주었다. 행정경제일군들과 토의하여 생활필수품도 갖추어주게 하였다. 손동무도 점차 《친어머니》의 다심한 손길을 느끼며 일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럴수록 초급당일군은 점차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때로는 그에게 엄한 매를 들기도 하였다. 초급당일군의 원칙적이면서도 뜨거운 진정앞에 그는 끝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그후부터 손동무는 일을 잘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탄부, 탄광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덩이》로 자랐다.

그뿐이 아니다. 초급당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갱의 김동무와 2갱의 서동무를 비롯한 많은 탄부들이 초급일군으로, 로력혁신자로 성장하게 되였다. 이렇듯 탄부들을 위하는 일군들의 마음이 뜨거운데 왜 군중이 그들을 믿고 따르지 않겠는가.

그럴수록 탄부들의 정신력은 최대로 폭발되였으며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당원들과 탄부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수십m에 달하는 사갱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기름진 탄밭을 마련해놓았다. 그리고 갱막장마다에서 석탄을 쨍쨍 캐냈다. 이렇게 되여 탄광은 군적으로도 앞선 단위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당일군들이 진정을 다해 사람들을 이끌 때 대중이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되며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는것을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이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경서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켜

사동구역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제날의 공로도 오늘의 위훈속에 빛나야 한다는것이 우리 영예군인들의 혁명적인생관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운 우리의 영예군인들이 사실 일을 하지 않아도 탓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날에도 잘 싸웠고 오늘도 락천적으로 생활하면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고있다.

영예군인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을 아끼랴.

사동구역당위원회가 영예군인들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몫으로 받아들이고 일군들이 앞장에 섬으로써 좋은 반영들이 제기되고있다.

지난 기간 구역당위원회는 구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것을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여기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하였다.

영예군인들과의 사업의 성과여부도 일군들, 특히 책임일군들에게 크게 달려있다.

구역당책임일군은 일군들에게 지난 기간 영예군인들과의 사업을 잘해왔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영예군인들은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핵심이고 전상자, 공로자인것만큼 당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군 한다.

구역당위원회는 부서들에서 자기 직능에 맞게 영예군인들과의 사업내용을 옳게 반영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구역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영예군인들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특히는 영예군인들이 일하는 단위들에서 그들의 작업조건과 휴식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또한 구역인민병원을 비롯한 보건부문 일군들이 영예군인들의 건강검진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건강회복에 필요한 약제들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송화2동에서 살고있던 영예군인 량명희동무에게 기울여온 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구역일군들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에 대하여 구역의 주민들은 가슴뜨겁게 추억하고있다.

량명희동무가 군사임무수행중 뜻밖의 일로 심한 부상을 당하고 제대되여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기간에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이 그에게 바쳐온 지성은 한두마디의 말로는 다 전할수 없다.

사실 그는 죽음을 선고받은것이나 다름없는 몸이였다. 그러나 그는 구역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과 뜨거운 진정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할수 있었다. 그가 가정을 이루게 되였을 때에 구역의 일군들은 친부모의 심정으로 부엌세간으로부터 가구들과 문화용품, 지어는 못과 망치까지 마련해주었다.

구역당책임일군은 영예군인이 살림집을 받아 이사를 하는 날 저녁 자기 집에서 정성껏 마련한 두툼한 이불과 폭신한 담요, 여러가지 음식까지 마련하여가지고 찾아가 그의 앞날을 축복해주었다.

그 이후에도 책임일군은 영예군인의 생활상편의와 치료에서의 신속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전화도 놓아주도록 하였으며 텔레비죤수상기도 보내주었다.

책임일군은 그의 집을 찾을 때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을 감명깊게 들려주면서 그가 언제나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도록 하였다.

책임일군이 얼마나 영예군인에게 관심을 많이 돌렸는지 인민반과 동의 주민들속에서는 친딸이 아니면 가까운 친척일것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다.

구역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영예군인의 건강회복과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영예군인의 병이 악화되였을 때에는 갖가지 보약들을 보장하기 위해 남모르는 걸음도 많이 걸었으며 정상적인 약수보장대책도 세워주고 세바퀴차도 해결해주도록 하였다. 또한 사동구역남새식료품종합수매상점 일군들과 봉사자들을 비롯하여 구역의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 성의를 다하여 돌봐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가 언제나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도록 신문과 도서들도 정상적으로 볼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었다.

명절날이나 그의 생일날이 오면 일군들은 친딸의 집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참으로 그 나날에 바쳐온 구역일군들의 진정은 말로 다 표현할수 없다. 이것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은 구역안의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돌보는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큰 품을 넣었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구역안의 영예군인들의 생활문제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는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송신1동 46인민반, 송신3동 87인민반, 삼골동 64인민반 등 구역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들에 대한 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지성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고마움을 폐부로 더욱 깊이 느끼게 하였다.

참으로 날이 갈수록 영예군인들에 대한 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동지애는 그 어떤 혈육의 정을 초월한 보다 뜨겁고 열렬한 사상감정으로 승화되고있다.

본사기자 최시홍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에로 추동하는 전투적화폭

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선전화전람회장을 돌아보고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선전화전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번 전람회에는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평양미술대학, 철도성미술창작사를 비롯하여 여러 미술부문 창작가들이 창작한 80여점의 우수한 선전화들이 출품되였다.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선전화들은 공동사설과업관철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전투적인 화폭들인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전화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의의있는 현상들과 대상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으로서 대중선전선동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오늘의 격동적이고 영웅적인 대고조시대는 천만군민의 무비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서 위력한 수단의 하나인 선전화창작에서 보다 큰 혁신을 창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올해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선전화전람회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시대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나가는 미술창작가들의 드높은 충실성과 창조적열정속에 높뛰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전투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선전화의 다양한 기법들을 적극 활용한 성과작들이 많이 창작출품된것으로 하여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선전화전람회에서 주목을 끈것은 무엇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강성대국건설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실현되며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수 있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필승의 기상을 직관적으로 힘있게 확인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점령못할 첨단이란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라는 사상을 양식화와 상징수법을 능란하게 배합하여 생동하면서도 깊이있게 도출해내고있는 선전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화폭의 중심에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고 밑단에 승리자의 긍지와 자랑안고 10월의 광장에 들어서는 각계층 인물들의 모습을 형상한 선전화 《경사스러운 10월의 광장에 떳떳이 들어서자!》, 강대하고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기상과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격동적인 화폭속에 울려나오는 선전화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김일성**조선 만세!》…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화폭의 중심에 높이 모신 작품들은 지난날 망국노의 설음속에 약소민족의 신세를 통탄하던 우리 인민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존엄높고 자주적인 강국의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특히 기술자들속에 계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선전화 《첨단을 돌파하여 더 높이, 더 빨리!》는 류달리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며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시고 오늘은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럽도록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사는 경제강국을 일떠세워주시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그처럼 간고한 고난의 시기에도 세기를 향해 내달리는 조국의 전진에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려 CNC화의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선군령도의 준엄한 길을 헤쳐오신 장군님!

작품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면서 그이의 령도따라 천만군민이 세계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며 이 땅우에 기어이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자고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우리 인민이 반드시 승리할수 있는 근본원천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데 있으며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길에 우리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귀중한 철리를 다시금 굳게 새겨준 여기에 이번 전람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가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는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반영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인 경공업과 농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도록 고무하는 선전화들도 많이 출품되였다.

집약과 함축의 수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갖가지 경공업제품들과 농산물 등이 줄지어 쏟아지는 속에 필필이 흘러내리는 천을 감싸안은 방직공처녀와 아름이 넘는 벼단을 안은 녀성농민의 모습을 동적인 자세로 조형화하여 형상한 선전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삼일포특산물공장에서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갖가지 제품들을 배경으로 더 많은 식료품을 인민들에게 생산공급할것을 호소하는 녀성로동자의 모습을 더운색과 찬색의 강한 대조속에 형상한 선전화 《인민들에게 더 많은 식료품을 보내주자!》 등은 당의 경공업혁명방침과 농업혁명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인민생활에서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이번 선전화전람회에는 지식경제시대에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활짝 꽃피워나가기 위한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절실한 시대적문제를 다양하고 폭넓게 반영한 작품들도 출품되였다.

작품들은 공동사설에 접한 즉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등 수많은 전투장들에 달려나가 첨단을 돌파해나가는 대고조의 숨결을 직접 체험하면서 전투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선전화들을 기동적으로 빠른 기간에 창작한 미술부문 창작가들의 창조적열정의 산물로서 이번 전람회를 훌륭하게 장식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지난해 우리 조국에서 일어난 력사적사변들과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양식화와 상징수법으로 생동하게 형상한 선전화 《첨단을 돌파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가자!》, 주제사상적내용에 맞는 세련되고 무게있는 구성과 재치있는 필치로 형상한 선전화 《철도의 현대화를 다그쳐 새로운 기관차와 화차를 더 많이 생산하자!》 등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첨단을 돌파해나갈 때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길수 있다는 사상을 직관적으로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전람회에는 이밖에도 《철도운수부문에서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자!》, 《그 어떤 제재도 통하지 않는다!》,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의 기둥!》, 《세계여, 우리를 보라!》,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자!》 등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고무추동하는 각이한 주제의 선전화들도 출품되였다.

이번 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선전화전람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경제강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세계를 향해 노도와 같이 돌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고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계기로 되였다.

평양에서 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선전화전람회가 진행된데 이어 곧 도순회전람회가 진행되게 된다.

본사기자 정영화

사회과학자의 본분을 다할 열의로

사회과학원에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한 올해 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선진사상의 소유자이며 전파자인 사회과학자들과 리론일군들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사회과학원의 책임일군들은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선군사상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폭넓게 서술한 여러종의 도서를 우선적으로 집필, 출판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매개 단위들에 올해연구목표와 전망연구목표를 명백히 제시하고 과학연구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사회과학원안의 많은 연구사들이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면서 가치있는 도서들과 소론문들을 풍부한 자료들을 안받침하여 품위있게 써내고있다.

력사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백두산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도서집필을 끝낸데 이어 우리 나라에서의 오랜 차문화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서술한 가치있는 도서완성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또한 일제에 의해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된 때로부터 10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일제의 침략적본성과 날강도적인 행위들을 폭로단죄하는 글들을 집필하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고고학연구집단에서는 지난해의 발굴성과들을 종합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평양시의 여러곳에 직접 나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실물로 더 완벽하게 고증할수 있는 유적유물발굴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민족고전연구집단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의 오랜 민족고전인 《비변사등록》의 방대한 번역과제를 앞당겨 끝내기 위하여 전체 연구성원들이 사색과 연구를 끊임없이 심화시키고있다.

주체문학연구집단과 민속학연구집단에서도 선군시대에 활짝 꽃펴난 문학예술성과들과 우리 인민의 우수한 생활문화를 집대성한 여러권의 단행본들과 상식도서를 집필, 출판하기 위하여 연구사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고있다.

특히 민속학연구집단은 여러 연구집단의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평양시의 민속공원건설에서 제기되는 많은 학술적문제들을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해주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전체 사회과학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과학연구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는데 보조를 맞추어 사회과학도서출판사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서광웅, 최홍락, 로정순, 은경옥동무를 비롯한 이 단위의 전체 성원들은 수십종에 달하는 사회과학도서들과 우리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상식도서들이 하루빨리 독자들의 손에 가닿도록 하기 위해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사회과학원에서 이룩되고있는 이 모든 성과들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백성근

대오의 기수

신창청년탄광 설비보수직장 직장장 김철호동무는 빈틈없는 사업조직과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이끌어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탄광의 석탄생산에서 직장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그는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막장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설비들의 수리를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늘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고있다.

오늘도 그는 순결한 량심으로 대고조진군의 하루하루를 값높이 수놓아갈 불타는 일념안고 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유춘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4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장 강경익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예술단성원들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꾸기

김정일화는 크고 탐스러운 붉은 꽃송이들이 오래동안 피여나 볼수록 사람들을 현혹케 하는 아름답고 진귀한 여러해살이알뿌리화초이다.

김정일화는 번식률이 강하고 환경조건에 대한 요구성이 그리 높지 않으므로 가꾸기 쉽다.

비교적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며 알맞는 온도는 15~25℃이다.

김정일화는 하루 14~15시간이상의 해비침시간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긴낮화초이다. 공기중의 습도는 60~70%가 알맞는다.

씨앗, 가지와 알뿌리 등으로 번식시킨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2월 16일을 맞으며 **김정일**화키우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김정일화를 실내조건에서 겨울에 기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화분을 해빛이 잘 비쳐드는 창가에 놓아야 한다. 낮해빛이 너무 세게 비치는 곳이면 창가에서 좀 떨어진 책상에 놓는다. 화분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자주 옮기지 말아야 한다.

해비침시간은 14시간 되여야 하는데 아침과 저녁시간에는 전등불이나 형광등으로 보충조명하면 된다.

꽃피는 때에는 밤온도 10~15℃, 낮온도 15~20℃가 가장 적당하다.

실내공기갈이를 자주 해야 한다. 이때 찬바람이 직접 식물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화분에 물을 줄 때에는 방안온도와 같은 온도의 물을 주어야 한다. 겨울기간 꽃이 피기 시작한 그루는 비료를 많이 주지 않는다.

김정일화가 꽃피우려는 시기보다 좀 늦게 필것이 예견되면 피우려는 꽃봉오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따준다.

일반적으로 꽃봉오리가 생겨 꽃이 활짝 필 때까지의 기간은 약 40~50일이며 첫 꽃봉오리가 형성된 후 약 10일 지나서 두번째 꽃봉오리가 생긴다.

그러므로 꽃봉오리수를 조절하자면 꽃을 피우려는 날자로부터 35~40일전에 관찰하고 꽃봉오리상태에 따라 그 일부를 따주어야 한다.

본사기자

값높은 생의 메아리

평양시직맹로병예술선동대에서

평양시직맹로병예술선동대가 자기의 첫 자욱을 뗀 때로부터 16년이 되였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각지의 전투장들을 찾고찾으며 로병예술선동대가 지금까지 진행한 공연회수는 무려 2천여회에 달한다. 이들의 나이는 80살을 가까이하고있다. 10대의 나이에 총을 잡고 조국을 지켜싸운 전쟁로병이라는 고귀한 이름과 더불어 조국의 축복과 후대들의 존경을 받으며 여생을 편히 누릴수도 있는 그들이지만 오늘도 어제날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의 격전장들을 찾아 《전선순회공연》의 날과 날을 끝없이 이어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의 일분일초를 충성으로 이어가며 아름다운 자욱을 남기는 사람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인간입니다.》

피로써 조국의 고지를 지켜낸 전화의 그 나날처럼 당과 조국을 위해 한생을 값있게 빛내이려는 숭고한 자각과 불타는 열정을 반영한 로병들의 공연은 사람들에게 1950년대의 투쟁정신과 함께 참된 생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조국을 받들고 빛내이는 길에서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보로 억세게 걸어가고있는 전세대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값높은 생의 목소리를 듣고있다.

뜻밖의 병으로 하여 운신하기 힘든 상태였지만 병사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전투장을 뜰수 없다고 하면서 생의 마지막까지 예술선동의 길을 이어간 김정복, 정영숙동무들, 지난해 11월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면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시는 전선길 천만리를 병사의 모습으로 따를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1211고지전투실화를 통한 선동을 진행하고 동지들의 곁을 떠난 김장환동무,

그렇듯 아름다운 생의 메아리를 들끓는 조국땅곳곳에 남기면서도 이들은 그 누가 자기들의 공연조건을 보장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때로는 렬차와 자동차를 타고 수십, 수백리를 달리기도 하였고 때로는 걸어서 먼길을 가기도 하였다. 누가 그들의 건강을 념려하면 우리야 말그대로 선동대원들이 아닌가고 하면서 어려운 모든 조건을 병사의 모습으로 자체로 뚫고 헤치며 지난 10여년간 달리고달렸다.

이들의 공연이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며 메아리쳐간것은 비단 로병들이 부르는 노래여서만이 아니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러 앞날을 축복받은 안춘영동무의 녀성독창 《아무도 몰라》, 송악산방어전투에서 위훈을 떨친 김경방동무와 어제날의 간호원 김춘정동무가 부르는 혼성2중창 《우리의 행복》, 어제날의 351고지용사인 선동대 대장 차석현동무의 독창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16살에 의용군에 입대하여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였던 홍인숙동무가 부르는 녀성고음독창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한곡한곡이 전문가들 못지않은 그들의 노래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격전장마다에 전화의 용사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기 위해 로병들이 기울인 고심어린 노력과 헌신, 뜨거운 열정이 비껴있다.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공연에서 커다란 감명을 받아안고 생의 노래를 이들처럼 부르고저 보람찬 삶의 길을 이어가고있는것이다. 지난해에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이들의 노래를 들은 60살이 지난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하는 일 별로 없이 손자들의 시중만 든것이 부끄럽다고, 조국을 위한 길에 자기의 힘도 깡그리 바치겠다고 토로하며 원군의 길에 나섰다.

—만일 단위종업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켜야 할 그러한 선동이 필요한 때면 평양시직맹로병예술선동대를 찾으라.

이것은 그들의 공연을 본 종업원들이 전세대들처럼 살며 일하자고 하면서 교대없는 전투를 벌려 100일전투의 실적을 올렸다는 어느 한 공장의 책임일군이 터친 목소리이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전쟁로병들의 대오에 다음세대들이 들어서고있다. 전쟁로병의 딸인 손풍금수 리명순동무, 어제날의 당일군인 제대군관 정은옥동무, 전세대들의 정신세계와 투쟁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다음세대들에 의하여 로병예술선동대의 바통은 꿋꿋이 이어지고있다.

올해의 첫아침, 격동적인 예술선동으로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을 크게 고무한 평양시직맹로병예술선동대원들은 올해에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총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차게 떠밀어줄 드높은 신심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참된 사랑, 지극한 정성

신의주시 본부지구종합진료소 리경희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격전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새해공동사설의 정신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여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기지 않는 의료봉사기지, 평균 한급이상씩 높아진 의료일군들의 자질, 고려치료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 기구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고려치료비중을 70~80%로 높인 결과 주민들로부터 진심어린 찬사를 받고있는 의료집단…

이것이 언제나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대고조의 벅찬 숨결을 안고사는 신의주시 본부지구종합진료소 의료일군들이 이룩해가고있는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얼마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에게 종합진료소의 의료일군들은 실력가형의 일군인 소장 리경희동무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주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로부터 오늘까지 종합진료소를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로 이끌어온 리경희동무는 대고조의 나날들과 더불어 집단을 당의 보건정책 관철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리경희동무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대고조시대의 지휘성원답게 대중을 당의 보건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 능숙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그는 우리 당 보건정책 집행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종합진료소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의료일군모두를 정성을 체질화한 의료일군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에 첫째가는 힘을 넣고있다.

어느날 새벽 2시경에 한 주민이 심한 아픔으로 다시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담당의사를 불러 함께 병원까지 가도록 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장은 앓는 몸이였지만 자기가 꼭 가야 한다며 자리를 차고 일어나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동틀무렵까지 환자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이날의 광경을 목격하면서 종합진료소와 병원의료일군들은 크게 감동하였다.

진료소의 어느 한 동무가 뜻밖에 심한 출혈로 사경에 처했을 때에도 도산원으로 데리고가 밤새워 수혈과 수술조직까지 도와나서 끝끝내 살려낸 일을 비롯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꼽자면 수없이 많다.

그는 말이나 호소에 앞서 항상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정성을 체질화하도록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일부 동무들이 고려치료수첩과 고려치료합리용을 정상화하지 못하고있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에 뜨겁고도 원칙적인 교양으로 담당의사들이 주민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안고 건강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이곳 의료일군들은 진심으로 소장을 따르고 무슨 일이 생겨도 의논하고싶어하며 집단의 일이라면 누구나 발벗고나서고있다.

이런 좋은 기풍은 지난해에 종합진료소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건하여 도적인 본보기를 창조하는 성과를 낳게 하였다.

한개 단위를 이끌어가자니 자신부터가 아는것이 많아야 하였다. 시간을 쪼개여가며 자체학습에 힘을 넣으면서도 소장은 대학을 갓 졸업한 의사로부터 실무능력이 있는 의사들도 자주 만나 허심하게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 소장은 학위론문을 완성하여 발표하게 되였고 이곳 의료일군들은 여러건의 발명증서와 창의고안증서 등을 받게 되였다.

이처럼 리경희소장은 오늘도 일군들의 어깨우에 대고조의 운명이 놓여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참된 사랑으로 대중을 이끌며 끊임없는 창조의 길을 쉬임없이 걷고있다.

본사기자 오현

병사의 어머니

덕성군 철산협동농장 김선희동무는 두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병사의 어머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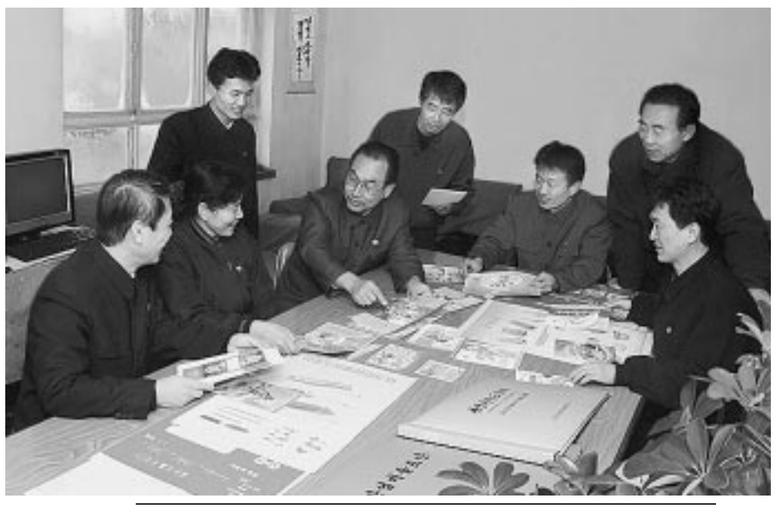
그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마음속으로 바란것은 오직 하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로 내세우는것이였다.

하기에 그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국을 알고 귀중한 어머니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것을 깊이 새기도록 마음썼다.

자식들이 다 자라 중학교를 졸업하는 차례로 혁명의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날 때마다 그의 가슴은 병사의 어머니된 긍지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그는 자식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로 내세운 후 방가족답게 언제나 마음을 초소에 이어놓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진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정상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경공업제품 —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 — 도안창작에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간다. 리진명 찍음

애국심이 낳은 열매

문평제련소 공무직장 로동자 리철환동무는 수십년간 한 직종에서 일하면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여 나라에 많은 리익을 준 기능공이다.

그는 어떻게 하면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여 전기와 자재를 절약할수 있겠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사색과 탐구를 이어왔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 타오른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가는데서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칠 결심은 그를 더욱 분발시켰다.

그는 길을 걸으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사색을 멈추지 않았다. 그 나날에 한 선반의 시동을 새롭게 할 착상을 하고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의 착상을 놓고 기대공들과 토론도 하고 기술자들과 함께 성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 자기의 착상에 대하여 신심을 가지게 된 그는 한 기대에 먼저 도입하였다. 새로운 시동방법으로 기대를 돌리게 되니 전기와 자재도 절약되고 기대공이 작업하기에도 편리하였다.

그는 그 시동방법을 직장안의 선반들에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전기와 자재를 절약하고 나라에 리익을 주게 되였다.

로농통신원 박병수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도착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장 강경익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이 2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랑의 친필을 받아안고 — 영웅소대 선동원 송순애동무의 가정에서 —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 룡양광산 6월5일갱 7호굴착기

겨레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민족의 어버이

지금 우리 인민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축복해주시며 오늘도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휩싸여있다.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고매한 덕성으로 력사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고 인류의 절대적인 칭송을 받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을 우러르는 남녘겨레들의 가슴에도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이 넘쳐흐르고있다.

남조선강원도의 한 로동자는 동료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민중이 언제나 잊지 않고 추억하는 위인은 민중과 함께 영생하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까지 어느 하루도 김일성주석님을 잊어본적이 없다.

한평생 오로지 겨레와 민중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은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민족의 영웅이시고 온 세계가 우러르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생각할수록 우리 겨레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민족의 령수로 모셔왔는가를 다시금 페부로 절감하게 된다.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은 이남민중의 마음속에 영원한 태양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광주에 사는 한 지식인은 자기의 글에서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있었지만 김일성주석님처럼 세계를 풍미하는 숭고한 정치리념과 출중한 향도력, 고결한 인품을 겸전하시고 장구한 나날 민족과 인류를 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그런 위인은 없었다.》고 하면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터놓았다.

주체철학연구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은 늘 이남민중에 대한 걱정과 조국통일문제로 밤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고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어버이이시였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김일성주석님을 더욱 그리워하고 그이의 영생을 바라며 생존시나 다름없이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려는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서울대학교의 한 로교수는 《김일성주석님은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나라의 통일, 세계자주화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참다운 민족의 령수, 위대한 혁명가이시였다.》라고 격찬하였으며 춘천의 한 주민은 《최상최고의 절대적권위를 지니시고 시대와 민족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천세만세 대를 이어가며 길이 모셔야 할 만민의 위대한 태양이시다.》고 칭송하였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을 자나깨나 절절히 그리는 남녘겨레의 마음은 세월과 더불어 나날이 더욱 뜨거워만지고있다.

오늘날 지구의 중심에 우뚝 솟아 세계를 굽어보며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쳐가는 우리 조국의 빛나는 력사는 그대로 위인중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력사이다. 일찌기 10대의 시절에 벌써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아오시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님, 세기적인 빈궁과 락후가 존재하던 이 땅에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위대한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분렬된 민족의 아픔을 가셔주시려 우리 수령님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은 또 그 얼마이던가. 자신께서 우리 겨레에게 안겨줄 최대의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통일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민족이 천추만대를 두고 길이 받들어모셔갈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보는 남녘겨레들은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수령님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셔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20세기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위업은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신 김정일령수님에 의해 견결히 옹호고수되고 빛나게 계승완성되고있다.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그분께서는 한없이 웅장하고 숭고한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 담력을 체현하신 백두산의 아들이시고 천출명장이시다. 그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시는 또 한분의 위인, 주체의 태양이시다.》

인천에 사는 한 재야인사도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은 곧 김일성주석님이시다. 배달민족의 피가 심장에서 뛰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신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을 대를 이어 마음속깊이 추앙하고 그분의 위업을 계승하시는 민족의 령수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경모하고 신뢰해야 한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번영과 행복이 있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굳게 믿고 따를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력력히 어린 이런 심장의 목소리들이 남녘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김정일령수님의 령도따라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 관철을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북녘의 동포들과 뜻과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성업에 적극 뛰여들어 민족성원의 도리를 다해나가자.》

《김일성주석님의 위업을 계승한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같은 환한 미소는 온 누리에 자주의 활력을 불어넣을것이며 통일강국은 이 지구상에 우뚝 솟아올라 그 존엄을 찬란히 빛내이며 부강번영을 구가할것이다.》

그렇다.

만민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령도로 통일강성대국으로 찬연히 빛날 내 조국과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고혁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

최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대결소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다.

얼마전 괴뢰국방부 장관이라는자는 그 무슨 《동북아미래토론회》라는데서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걸고들면서 《선제타격》이니 뭐니 하는따위의 극단적인 폭언을 또다시 꺼리낌없이 줴쳤다.

괴뢰당국의 정책연구기관들인 《통일연구원》과 《외교안보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과 그 족속들은 무슨 《급변사태》를 가상한 허황하고 무모한 북침각본인 《통일대계탐색연구》라는 불순한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배포하는가 하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흡수통일》을 가정한 모략방송선전물을 제작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남조선당국과 대결광신자들속에서 련이어 쏟아져나오는 호전적이며 도발적인 망발들과 북침모략각본들은 그들의 체제대결흉심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지난 시기에도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는 악담들과 폭언이 튀여나오고 북침모략각본이 드러나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처럼 《통일부》와 《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대북관련당국과 호전광들이 서로 작당하여 북침전쟁과 체제대결기도를 정면으로 드러내면서 반공화국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린적은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반공화국소동에 미쳐날뛰면서 북남관계를 대결의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남조선보수패당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반공화국소동과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는 남조선의 보수패당에게 무모한짓이 가져올 위험한 후과에 대해 여러차례 엄중히 경고하였다.

더우기 얼마전 괴뢰당국이 그 무슨 《급변사태》에 대비한 극히 도발적인 북침각본인 《비상통치계획》이라는것을 비밀리에 작성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면서 범죄행위의 사죄와 모략각본의 백지화, 주모자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사죄는 고사하고 더욱 엄중한 도발로 대답해나선것은 그들에게는 북남관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동족대결의 흉심만 꽉 들어차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의 그 무슨 《선제타격》이니, 《급변사태》에 따르는 《비상통치계획》이니 뭐니 하는것으로 말하면 영원히 있을수도 실현될수도 없는 개꿈에 지나지 않으며 가소롭기 그지없는 얼빠진 망상이다.

인류전쟁사는 침략자들의 그 어떤 선제타격도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물며 무적필승의 강군 우리 군대의 주체적전법과 동원태세앞에 괴뢰따위의 《선제타격》은 부나비가 제 죽을줄 모르고 불에 접어드는것과 같은 미련하고 아둔한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급변사태》에 대해 말한다 해도 괴뢰패당은 어리석게 남을 건너다볼 생각을 하지 말고 제 처지부터 걱정해야 할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날이 갈수록 극심한 정치적위기와 혼란에 빠져들어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

력대적으로 군부쿠데타에 의해 《정권》이 뒤집어지고 《대통령》이 총에 맞아 개죽음을 당하는 등 《급변사태》로 악명떨친 곳은 다름아닌 남조선이였다.

반면에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전대미문의 고립압살과 전쟁책동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과시하며 날로 승승장구하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그 누구에 대해 《선제타격》이니, 《급변사태》니 뭐니 하는 얼빠진 넉두리를 늘어놓고있는것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강성대국을 향해 비약하는 공화국의 격동적인 현실에 내외의 이목이 쏠리는것을 차단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며 저들의 내부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서푼짜리모략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보수패당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감히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삿대질하면서 도전해나선다면 그로 해서 얻을것은 수치스러운 자멸뿐이다.

괴뢰군부호전광우두머리가 전면에 나서서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당국과 《국책》연구기관들이 《급변사태》를 가상한 각종 북침흉계들을 내든자체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남조선보수당국이 끝끝내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온다면 주저없이 단호히 맞받아나가 우리의 무자비한 본때를 보여줄것이며 반통일매국역적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성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백여년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후세에 두고두고 치욕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있듯이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으면서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며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괴뢰국방부장관 김태영, 괴뢰통일부 장관 현인택, 괴뢰정보원 원장 원세훈, 괴뢰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은 《경인4적》의 수치스러운 이름과 함께 력사와 민족의 저주와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감히 부정하며 경거망동하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의 어리석은 대결소동이 불러올 돌이킬수 없는 후환에 대해 명심하여야 한다.

주체99(2010)년 1월 23일
평 양

애국애족의 통일명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집권세력의 책동으로 하여 민족분렬영구화의 위험은 더욱 커만 갔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헤치고 통일위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자면 온 겨레에게 새로운 신심과 락관을 안겨줄 획기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는것이 무엇보다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69(1980)년 10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로서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천명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통일불가능》론을 부르짖던 분렬주의자들에게 내린 준엄한 철추였다.

정녕 통일의 앞길에 드리웠던 어둠을 가셔내고 온 겨레에게 새로운 신심과 락관을 북돋아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가장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제시하실수 있는 애국애족의 통일명안이였다.

주체79(1990)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자리에는 해외의 여러 지역에서 온 대표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해외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한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다음 대표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범민족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시며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며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열망이라는데 대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외부에도 있고 민족내부에도 있다는데 대해 알기 쉽게 말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서도 차근차근 해설해주시였다. 조국통일을 북과 남이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방도로서 온 민족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하나로 굳게 뭉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그들은 민족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면서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굳은 결의를 다졌다.

본사기자

해외동포들의 강렬한 조국통일의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해외동포들의 통일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우크라이나고려인통일련합회는 6.15통일시대는 북과 남이 대결관념을 털어버리고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공조하여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의 길로 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력사는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할때 북남관계의 발전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새겨주고있다고 하면서 단체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뭉쳐 투쟁하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하였다.

범민련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는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에로 전환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게 하는 6.15통일시대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이라고 하면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관점부터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 지구협회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대범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협력과 교류사업이 시련과 곡절을 겪고있는것은 남조선당국이 그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으며 통일을 방해하고 민족의 영구분렬만을 추구하고있기때문이라고 단죄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대화와 련대련합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부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가로막으려고 미쳐날뛰는 반통일세력들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더욱 과감하게 벌려나가자고 단체들은 호소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는 해외동포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애국심과 민족애를 더 높이 발휘해나가는것을 통일운동의 기본좌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념원하는 유럽의 동포들이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대결정책에 맞서 민족의 화해와 자주통일을 위한 운동을 근기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안고 해외동포들은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의지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호전광들 《혹한기 야외전술훈련》계획 공표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괴뢰군 제53보병사단이 25일부터 2월말까지 3단계에 걸쳐 《혹한기 야외전술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해안침투》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부산 해운대구일대에서 군사연습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실시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새해에 들어와 련이어 감행되는 괴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더욱 격화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전교조》말살음모를 단죄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20일 《전교조》말살을 노린 당국의 음모책동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로동연구원》에 그 무슨 《정책연구》를 위임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19일 《토론회》라는것을 벌려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토론회》에서 《〈전교조〉가 〈정부〉와 교육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느니, 《〈전교조〉 교원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낮다.》느니 뭐니 하는 엉터리 통계분석자료들이 《연구결과》의 이름으로 발표되였다고 하면서 사설은 이 모든것들이 하나같이 《전교조때리기》로 일관되여있다고 까밝혔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로조를 탄압할 구실을 찾으려는 당국에 추종하여 《연구》의 명목으로 수자놀음을 한것으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로동연구원》을 둘러리로 세워 교육혼란의 책임을 《전교조》탓으로 돌리려는 당국의 기도가 비렬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현 당국의 부당한 교육정책으로 하여 갈수록 암담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외면하고 시국선언 등을 구실로 《전교조》를 말살하는데 민중들의 혈세를 탕진하고있다고 사설은 단죄하였다.

범죄적인 《인권》소동을 규탄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17일 론평을 발표하여 미국의 비렬한 반공화국《인권》소동을 규탄하였다.

론평은 지난 11일 남조선에 날아든 미국무성의 한 관리가 북의 《인권》이 어떻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줴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북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상투적인 모략책동이라고 하면서 《북인권》소동이 미중앙정보국 등에 의해 조작되고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론평은 까밝혔다. 론평은 세계적으로 온갖 반인권적폭행을 일삼는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단죄하였다.

도처에 설치된 감옥에서 잠안재우기, 성고문 등 온갖 고문만행으로 수감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인권적범죄를 저지르고있는 미국이 오히려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이야말로 기만행위가 아닐수 없다고 론평은 규탄하였다.

론평은 미국이 진정으로 인권을 존중한다면 우선 북에 대한 《제재》와 핵위협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체 민중이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책동과 《북인권》소동에 철퇴를 내리기 위해 싸워나갈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반공화국대결정책철회를 요구

남조선의 진보련대가 20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북남관계개선을 저애하는 당국의 반통일적망동을 비난하였다.

단체는 북의 대범하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관계개선에 긍정적인 환경과 분위기가 마련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정부》가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고집하며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면 그 후과에 대해 무엇으로써도 정당화, 합리화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아야 할것이라고 단체는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녀성들

파쑈탄압에 항의

남조선의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가 20일 진보단체성원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탄압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난 19일 경찰당국이 《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성원 민소현의 집에 달려들어 압수수색소동을 벌려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경찰이 그가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와 련계가 있으며 《보안법》위반혐의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있다는 감투를 씌워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고 성명은 폭로하였다.

폭압과 폭정으로 얼룩진 살인독재《정권》의 마구잡이식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관계개선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통일소동

남조선의 반통일분자들이 년초부터 불순한 야망을 추구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해나서고있다.

며칠전 남조선《통일교육원》이 15년만에 《북의 대남전략》이라는 모략적인 교재를 다시 꾸며낸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 무슨 《북의 대남전략》이라는 책자는 《유신》독재시기인 1972년에 생겨난 《통일연수소》(《통일교육원》의 전신)가 남조선에서 높아가는 련북통일기운을 말살하고 사회전반을 북남대결과 반통일의 독소로 질식시킬 목적으로 만들어낸 불순하기 그지없는 반공문서이다.

남조선에서 시대의 흐름을 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가 날로 높아가는 속에 이 반공책자는 사회각계의 규탄배격을 받고 사라졌었다. 그러던것이 지난 2007년 극우보수적인 《실용정권》이 등장하면서 북남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반통일분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반통일교육이 다시 나타나게 되였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동족을 터무니없이 마구 헐뜯어 사회각계에 우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주입하기 위해 대결을 극구 고취하는 방향으로 각급 학교교재들을 뜯어고치고 지어 유치하기 그지없는 반공만화책까지 만들어 내돌리며 비렬한 모략소동에 미쳐날뛰였다. 그 연장선우에서 이번에 《통일교육원》이 《북의 대남전략》이라는 반공책자를 다시 발간하는 놀음을 벌린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대결을 추구하면서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상태에 못박아두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가를 다시한번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통일교육원》은 《통일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통일교육》과 《통일전문가》양성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한다. 이런 기관이 낡은 대결시대의 악취가 풍기는 반공보따리를 풀어헤치고 력사무대에서 사라졌던 대결교재를 되살려낸것도 문제이지만 개악보충된 교재의 내용은 더우기 격분을 자아낸다.

이번에 《통일교육원》은 이 반공교재에서 최근 우리 공화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애국애족의 립장으로부터 일련의 아량있는 조치들을 취한것을 걸고들면서 《근본적인 변화로 볼수 없다.》고 모독해나섰다. 특히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의 절대불변의 진리로 만인이 공인하고 따르는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로선에 대하여 감히 횡설수설하며 어리석은 궤변들을 늘어놓았다. 이것을 통해서도 그 무슨 《북의 대남전략》이라는 책자가 진실을 외곡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흐려놓고 동족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과 적대심을 불어넣기 위해 꾸며진 더러운 대결교재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화해와 협력, 관계개선을 주장하는 동족을 오히려 불신하고 적대시하면서 대결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통일부》가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협력사업들을 부당한 구실을 붙여 계속 차단하고있는 사실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통일부》패거리들은 주민들의 그 무슨 《신변안전보장》과 《투명한 교류협력추진》을 운운하며 올해에도 북남교류협력사업에 차단봉을 내릴 흉심을 공공연히 내비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우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던 《전국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제지당하였다. 지난해에 이른바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전략물자반출우려》를 구실로 금강산관광재개를 비롯하여 500여건의 북남협력교류사업들을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이 그 본때대로 새해에도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협력교류를 사사건건 가로막으려 한다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면서 대결을 조장, 격화시키는 남조선당국의 망동은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소동에로 이어져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군부세력이 새해 정초부터 그 누구의 《도발가능성》을 떠들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침투 및 국지도발대비》훈련이라는것을 벌리고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면서 대결전쟁광기를 부린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말로는 북남관계에서의 《변화》를 떠들면서도 실제에서는 그 길목에 파국의 함정을 파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것은 못된 속심을 품고 관계개선의 냄새만 피우다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화해와 협력의 실질적인 기회가 마련되자 그에 놀란 남조선집권세력의 불안한 심리상태의 반영이다. 날로 고조되는 대화와 관계개선의 기운으로 대결정책이 파산될 위구를 느낀 남조선의 반통일광신자들은 어떻게 하나 그 흐름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반목과 질시, 대결과 충돌에로 몰아가려고 분별없이 헤덤비고있는것이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며 구태의연한 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올해공동사설의 호소따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해 떨쳐나선 우리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민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외면하면서 대결과 전쟁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당국의 무분별한 망동을 단죄규탄하면서 반《정부》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에로 향한 대세의 흐름은 그 어떤 도전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반통일대결정책을 고집하면서 민심을 계속 거역해나서는것은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것이다.

본사기자 리효진

당국의 사대굴종행위를 단죄하여
남조선의 인터네트방송 글 발표

남조선의 인터네트방송 《민중의 소리》가 14일 부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와 관련한 당국의 사대굴종행위를 폭로단죄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최근 부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비용을 남조선당국이 부담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지반환협상이 타결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몇해전 기름류출로 인한 기지내 환경오염정화책임이 저들에게 있다는것을 인정하였던 미국이 그 이후 부당한 구실을 대며 이를 거부하고 협상을 끌어왔었다고 글은 밝혔다. 글은 현 《정부》가 미국의 전횡앞에 급기야 손을 들며 오염정화비용을 감당하기로 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이로 하여 현재 반환협상을 앞두고있는 미군기지내 환경오염정화비용까지도 남조선이 떠맡을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글은 더욱 엄중한것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환경부》가 나서서 부산 등지에서의 미군의 환경파괴죄행을 축소하며 저들의 굴욕행위를 정당화해나서고있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당국의 사대굴종행위를 두고 각계층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있다고 글은 강조하였다.

《한나라당》의 망동을 비난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9일 《재판간섭을 사법개혁이라고 우기는 〈한나라당〉의 망발》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최근 《한나라당》이 민주로동당 대표 강기갑에 대한 무죄판결을 걸고들다 못해 재판과 법관인사에까지 간섭하는 등 제정신을 잃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한나라당》이 그 무슨 《대책회의》라는데서 《실망스러운 판결이 계속되면 〈국회〉와 여당이 나서야 한다.》느니, 《〈국회〉가 사법을 법판의 전유물에서 해방해야 한다.》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고 《국회》에서는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법원》관계자를 불러들여 추궁하는 놀음을 벌린데 대해 사설은 폭로하고 이것은 사법당국을 길들여 과거 독재《정권》때처럼 재판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여 저들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까밝혔다.

본사기자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

고매한 덕성은 위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장구한 인류사에는 덕망이 높은것으로 하여 이름을 남긴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처럼 그렇듯 고결한 인품과 넓은 포옹력,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시고 성스러운 혁명생애의 순간순간을 인간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의 자욱자욱으로 찬란히 수놓으신 그런 위인은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인덕으로부터 뛰여난 인품과 소탈한 성품, 검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와 거룩한 영상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특출한 위인상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빛나는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존함은 오늘도 세계인민들의 가슴속에 정의와 진리, 참다운 인간사랑의 상징으로 깊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만민을 자그마한 간격도 두지 않으시고 따사로운 넓은 품에 안아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기네의 한 평범한 기자가 급병에 걸려 생사기로에 놓여있을 때였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마음쓰시며 시급히 유능한 의료진을 동원시켜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치료전투를 벌리도록 하시였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뜻밖의 중병에 걸려 하마트면 생명을 잃을번 하였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최상의 치료조건이 갖추어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위급한 고비를 무사히 넘기게 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자의 병세가 좋아진 후에도 시종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도록 온갖 은정어린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완치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친히 몸가까이 부르시여 건강상태를 세심히 알아보시고 참관일정도 짜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우리 나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할 때에는 특별비행기까지 내주도록 하시는 하늘같은 사랑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난 그는 외국의 한 평범한 기자를 위해 세계외교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 우리 수령님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면서 이렇게 소리높이 웨쳤다.

《정녕 **김일성**주석각하이시야말로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시기 전에 한없이 위대하고 인자하신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전 꾸바녀성법률가 깐델라리아도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을 가슴한가득 받아안은 외국인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우리 인민이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겪던 1951년 5월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의 한 성원으로 우리 나라에 와서 미제의 치떨리는 세균무기사용만행을 조사하고 세계에 폭로한 녀성이였다.

그는 그후에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40년만에 다시 본 조선》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성과를 소개선전하는 여러권의 도서를 집필하였다. 그의 소행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그를 만나시여 책을 아주 잘 썼다고 높이 평가해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평범한 한 외국인을 친딸처럼 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에 감복한 그는 《**김일성**주석님은 진정 인류의 어버이, 인류의 태양이시다.》라고 뜨거운 격정을 터뜨렸다.

만민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의 벗들을 만나실 때 그들과 의례적인 담화나 나누고 헤여지는 법이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만나주시면 상대방의 범상한 이야기도 허물없이 다 들어주시였으며 조언을 주실 일이 있으면 아무리 바쁘시여도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고 품을 들여 진지하게 말씀하시면서 걸린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군 하시였다.

때로는 식사에 초청도 하시고 공연도 함께 보시면서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을 모두 안겨주시고서야 마음을 놓군 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그이를 《인류의 태양》, 《만민의 어버이》, 《사랑과 인덕의 화신》, 《자애로운 스승》, 《불세출의 대성인》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고매한 인격적매력은 온 우주를 끌어당기는듯 한 무한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만사람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지어 적대국가의 정치인들과 종교인들까지도 그이를 한번 만나뵙기만 하면 순간에 매혹되군 하였다.

1994년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고 그이의 거룩한 인품에 매혹된 미국 전 대통령 카터는 기자들에게 **김일성**주석은 미국의 이름있는 력대 대통령 3명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시라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한때 일본정계의 《막후실력가》로 알려졌던 가네마루 싱은 우리 공화국을 몹시 적대시하던 인물이였다. 그러하던 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후부터는 《**김일성**주석각하를 위해 한생을 바치는것》을 자기의 정치적신조로 선포하기까지 하였다.

고령의 몸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미국의 종교지도자 빌리 그라함목사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여 《세계에는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있지만 유독 **김일성**주석께만은 각별한 존경심을 품게 된다. 미국사람들도 주석님의 풍모를 따라배워야 한다.》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피력하였다.

정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높이 칭송하며 따르는 만민의 위대한 어버이,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경모하면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휘황찬란한 래일을 마중해가는 우리 공화국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20세기 인류가 낳은 전설적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세계인민들의 심장속에 만민의 위대한 어버이, 불세출의 대성인으로 영생하실것이다.

본사기자 서남일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인민

여러 나라 인사들 담화 발표

당보, 군보, 청년보의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하여 남아프리카와 방글라데슈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남아프리카공산당음푸말랑가주위원회비서인 남아프리카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보나켈레 마주바는 7일 담화에서 우리는 조선의 새해공동사설을 커다란 흥분속에 접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인류가 생겨 오랜 세월이 흐르고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옹근 한해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는 해로 정한 력사도, 나라도 없다.

이것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희한한 일이며 언제나 인민을 위하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각하께서만 내리실수 있는 결단이다.

김정일령도자각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신것도, 강성대국건설로선을 제시하신것도 바로 인민을 잘 살게 하고 조선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인민에 대한 그이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본다.

지난해에 조선인민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고 제2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CNC기술에서 세계의 첨단을 확고히 돌파하고 조선식의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과학기술과 경제력이 이미 발전된 높은 수준에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김정일령도자각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인민생활문제를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한해정책으로 삼도록 하시였다.

우리는 세계가 올해에 조선의 인민생활향상에서 이룩될 결정적전환들에 또다시 놀라움을 표시할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은 일단 결심하시면 무조건 해내시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해결하시는 **김정일**령도자각하의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령도가 있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불가능을 모르는 위대한 조선인민이 있기때문에 필연적이다.

새해공동사설은 2000년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강조하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제시하였으며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갈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호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나라를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이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다.

방글라데슈평화리사회 서기장 카말 하이더는 10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올해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이 되는 의의깊은 해이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조선의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일찌기 볼수 없었던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은 악랄하지만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여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조선인민의 지향과 의지는 꺾을수 없다.

우리는 북남공동선언들이 가장 정당한 통일대강이며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6.15통일시대의 조선민족정신이고 유일한 리념이라는것 그리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우리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외세의 간섭없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을 지지한다.

우리는 전체 조선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민족의 통일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본사기자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한다

핀란드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핀란드조선협회가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지지하여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평화협정체결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고 간주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것은 항시적으로 미제국주의의 핵위협속에서 살고있는 조선인민의 확고한 결심이며 드팀없는 의지이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세우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제의를 즉시 받아들이고 조선과의 대화에 적극 응해나와야 한다.

우리는 평화협정체결과 미국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는것이 조선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라고 인정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제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언한다.

국제기구와 인디아인사 담화 발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가 14일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지지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한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미국정부가 조선의 제의를 진지하게 대하며 조선과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자면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조선을 반대하는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을 제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날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비서 디. 라자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나는 조선외무성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올해는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로동당과 용감한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그러나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미군의 남조선주둔으로 하여 조선의 통일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나는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들을 당장 철수시키며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조선의 제의에 지체없이 응해나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다시한번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본사기자

미국의 령공침범행위를 규탄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챠베스 프리아스가 8일 내각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 령공에 대한 미국의 침범행위를 규탄하였다.

그는 이날 까리브해의 한 섬에 기지를 두고있는 미군비행기가 베네수엘라령공을 2차례나 침범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미군비행기를 격추할데 대한 명령을 이미 공군부대들에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

모잠비끄대통령 아르만두 에밀리우 게부자가 14일 취임연설에서 새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전체 인민을 묶어세워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며 사회 및 경제발전을 다그쳐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부정부패,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구제사업의 중요성 강조

인도네시아대통령 쑤씰로 밤방 유도요노가 14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구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나라에서 자연재해로 인명피해와 경제적손실을 자주 입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재해지역들에 대한 긴급원조제공제도를 더욱 완성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는것이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이스라엘의 폭압만행과 그릇된 처사를 단죄

—레바논수상 싸아드 하리리가 20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침범행위를 규탄하였다.

최근 레바논령공에 대한 이스라엘군용기들의 침범회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행위로 락인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지역의 평화를 이룩할 의향을 가지고있지 않다고 비난하였다.

—쿠웨이트부수상 겸 외무상 무함마드 사바흐 알 쌀림 알 사바흐가 17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당국자들의 망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자들이 이란의 핵시설들을 공격할것이라느니, 에짚트의 아스완언제에 핵공격을 가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폭언을 줴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어리석고 무분별한 망발로 락인하였다.

그는 현 이스라엘당국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협조

케니아와 싱가포르가 18일 항공운수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두 나라 수상들이 문건에 조인하였다.

한편 이날 중국은 말라리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우간다에 24만 4 000명분의 약을 기증하였다.

엘 쌀바도르와 웰남이 16일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이보다 앞서 15일 싱가포르와 중국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쌍무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협회를 새로 내왔다.

수출 증대

타이에서 지난해 12월에 수출액이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26.1% 증대되였다.

국내생산장성목표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국내총생산장성률을 5.5%에 달하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인플레률 감소

가나에서 지난해 12월에 인플레률이 11월의 16.92%로부터 15.97%로 낮아졌다.

경제발전조치

탄자니아에서 최근 15개년경제발전전략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하부구조를 개선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게 된다. 빈궁청산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은 올해부터 실시되게 된다 한다.

본사기자

인구

수리아의 인구가 지난해초까지 2 302만 7 000명에 이르렀다.

최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자연피해

—에짚트의 남부지역과 시나이반도에서 최근 며칠째 계속 내린 폭우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18일현재 6명이 목숨을 잃고 10여명이 행방불명되였다. 또한 수십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비행장과 항구들이 폐쇄되였으며 통신망이 마비되였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도 큰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다리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났다 한다.

—메히꼬에서 한파가 계속 휩쓸어 인명피해가 늘어나고있다. 한파로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치와와주를 비롯한 북부지역에서 1886년이래 가장 낮은 기온이 기록되였다.

정부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지만 피해는 계속 확대되여 15일현재 사망자수가 22명으로 늘어났으며 북부와 서부지역에서 일부 도로들이 폐쇄되였다 한다.

나라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뉴질랜드의 웰링톤시에서 16일 강풍이 휩쓸어 피해가 났다. 강풍으로 건물들의 지붕이 날아나고 살림집창문들이 깨졌으며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워 넘어졌다. 또한 교통이 마비되고 전기줄들이 끊어져 주민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한다.

본사기자

오늘의 세계

전략적리해관계 대립으로 심화되는 갈등

최근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강화에 촉각을 세우고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얼마전 중국에서 미싸일요격시험이 진행되였다.

중국은 이번 시험이 방위적인것이며 다른 나라를 겨냥한것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미싸일요격시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미국은 《사전통보내용을 몰랐으며 시험후 정보제공도 불충분하였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중국에 《미싸일요격시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를 공개》할것을 요구하였다.

요격시험과 관련한 중미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몇해전 중국이 위성요격시험을 하였을 때 미국은 법석 떠들면서 중국의 행동이 미중사이의 협력정신에 위반된다, 중국이 세계의 《위협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중국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우주의 평화적리용이 《불가능》하게 되였다고 비난하였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미싸일요격시험을 문제시함으로써 중미사이에 또다시 마찰이 일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중미사이에는 대만문제, 티베트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벌어지고있다.

지난 6일 미국은 군수독점체인 《록키드 마틴》회사가 《패트리오트》미싸일을 대만에 판매하는것을 비롯하여 수십억US$에 달하는 대만무기판매계획을 승인하였다.

중국은 이것을 《하나의 중국》원칙에 배치되는 내정간섭행위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측이 대만에 선진무장장비를 판매하는것은 중미사이의 3개 공동콤뮤니케, 특히 〈8.17공동콤뮤니케〉의 원칙을 심히 위반하는것으로서 중국의 안전리익과 대만해협의 평화 및 안정을 파괴하고 중국내정에 간섭하는것으로 된다.

우리는 미국측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의 엄중성을 똑똑히 알고 랭전식사유를 버리며 중미사이의 3개 공동콤뮤니케, 특히 〈8.17공동콤뮤니케〉의 원칙을 준수하여 중국의 핵심리익과 중대한 우려에 관한 공약을 지키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무기판매와 관련한 계획을 취소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지함으로써 중미협조의 대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중국국방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두 나라사이의 군사적신뢰를 엄중히 훼손시킨다고 하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대응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대만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이중기준정책과 중국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움직임을 경계하면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특히 해군무력강화에 힘을 넣고있다.

중국은 미국이 태평양지역에서 해상기동타격무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하면서 대중국포위환을 형성하고있는데 대처하여 해군무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중국은 령해와 연안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고 미국의 군사적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현대적인 함선들과 미싸일을 해군에 배비하여 그 작전능력을 보다 높이고있다.

일본의 한 신문은 《중국군은 2008년 가을까지 〈항공모함계획〉을 작성하고 해군사령부내에 전문부서를 설치하였다.

중국군이 2009년부터 첫 국산항공모함건조를 상해에서 시작하여 2015년까지 5만~6만t급의 중형항공모함 2척의 건조를 지향하고있다.

또한 료녕성의 대련항에 있는 이전 쏘련군의 항공모함이 정비를 끝내고 훈련용으로 취항할 전망인데 함재기조종사의 양성도 시작되였다.

항공모함의 배비로 중국해군의 해상전투능력이 높아질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 신문은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에 강하게 대처하고있다, 그 일환으로 수상함선타격용지상발사탄도미싸일에 대한 개발, 배비계획을 추진하고있다, 이 미싸일은 사정거리가 3 000km로서 방향전환능력을 갖춘 재진입운반수단을 장비하게 될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중국의 《주패장》이다라고 전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위협》을 운운하면서 서태평양지역에서 해상작전무력을 증강하는 등 중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을 강화하고있다.

여론들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 견제하고 아시아에서 군사적패권을 틀어쥐려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이 지역 정세가 복잡해지고 전략적리해관계의 대립으로부터 출발하고있는 중미사이의 갈등과 마찰이 더욱 심화될것으로 보고있다.

본사기자

막이 오른 《싸이버전》

최근 이란이 《쏘프트전쟁》을 벌리려는 서방의 음모에 강력히 대처해나가고있다.

이란을 노린 서방의 《쏘프트전쟁》의 목적은 인터네트를 통하여 이란인민들의 반제자주정신을 마비시키고 사회적무질서와 불안정을 조성하자는데 있다.

얼마전 이란안전군 사령관은 인터네트범죄와 싸우는 《싸이버경찰》사단을 조직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이 부대는 조직적인 싸이버범죄를 감시할 사명을 맡게 될것이라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이란경찰은 지난해 4월까지 1년동안 12만 4 000건의 인터네트관련 범죄사건을 적발하였다. 그가운데서 26%가 콤퓨터망들에 대한 비법적인 접속 및 해킹과 관련된것이며 26%는 사회생활에 대한 비방중상과 거짓말을 류포시키는것 등이라고 한다.

이란의 한 국회의원은 《오늘날 서방국가들은 사회여론을 부추겨 민주주의국가들의 정부들을 전복하기 위해 〈쏘프트전쟁〉을 일으키려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륙군사령관은 《이란이슬람공화국에서의 쏘프트안보》를 위한 연단에서 《적들은 이란을 반대하는 〈쏘프트전쟁〉에 매달리고있으며 이슬람공화국을 굴복시키려 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쏘프트전쟁》을 통하여 《적들은 상대방의 사고에 영향을 주어 승리를 이룩하며 상대방의 가치관과 행동방식에 침입하여 그것을 변질시킴으로써 자기의 목적들을 달성하려 하고있다.》고 밝혔다.

최근년간 서방은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을 걸고들면서 이 나라에 대한 제재와 함께 위성중계소들과 인터네트를 리용하여 이란정부를 모해하고 거꾸러뜨리려고 획책하고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책동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첫째가는 공격목표로 삼고있다. 한가지 사실을 놓고보자. 2006년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반대하는 전쟁을 감행하였다. 이 전쟁이 이란전쟁을 가상한 예비전쟁, 시험전쟁이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레바논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은 《인터네트전》그루빠모집계획을 공개하였다. 이스라엘이 이 계획을 작성하게 된것은 레바논전쟁에서 여러가지 물리적이며 심리적인 방법들을 적용함으로써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기때문이다. 레바논전쟁당시 이스라엘은 레바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랍어로 된 가짜싸이트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며 레바논의 히즈볼라흐전투원들을 저들에게 넘겨주면 그 대가로 보수를 지불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개인들의 손전화기에 접근하기 위한 작전들을 벌리였다. 그후 이스라엘은 《인터네트전》그루빠모집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싸이버전》을 위한 인원들이 모집되게 되였으며 《싸이버전》기초교본도 작성되였다. 이 교본은 이미 레바논전쟁때부터 마련되였다고 한다. 《싸이버전》수행에서 주도적역할을 놀고있는것은 이스라엘군이다. 이스라엘의 기본정보기술자들은 군부에서 나오고있다. 이스라엘군의 정보기관안에 《싸이버전》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는 해커들을 양성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한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싸이버전》에 이란을 비롯한 아랍나라들이 강력히 대응해나서고있다.

어느 한 나라 잡지는 《싸이버공간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패하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년간 이란과 그 동맹국들의 싸이버공격이 이스라엘의 망체계를 크게 위협하고있다. 지난해초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를 공격하였을 때 고도의 싸이버공격을 받았다. 그 절정시에는 이스라엘의 정부관련 싸이트에 50만대의 콤퓨터로부터 수많은 전자우편이 날아들었다. 이스라엘의 민간방위군싸이트의 기능이 마비된것을 비롯하여 많은 정부계싸이트에 일시적으로 접속할수 없게 되였다. 싸이버공간의 경우에는 무기를 가지고 하는 싸움에 비해 쌍방사이에 실력차이가 없는것 같다.》

본격적인 대이스라엘싸이버공격은 중동지역에서 령토팽창책동과 인권유린행위를 일삼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사람들의 항거심의 표현이다.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공군사령관은 《이란은 렬강들의 예상을 초월하는 하드웨어 및 쏘프트웨어기술을 획득하였다. 세계의 거만한자들과 기타 렬강들은 자체의 기술발전에 의거하고있는 이란이 저들의 예상을 초월하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하였다. 이란은 적들의 군사적공격책동에 대처하여 자체로 생산한 2 000km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싸일들로 적진지들을 타격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놓았으며 2 000km를 비행하여 적들의 진지들을 촬영할수 있는 신형무인조종비행기들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발표하였다.

이란의 한 군사전문가는 쏘프트웨어분야에서 이룩된 이란의 기술적진보는 그 어떤 위협도 처리할수 있는 유력한 대화를 이끌어내고있다고 하면서 이란의 청년들에게 의거하고있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군용하드웨어제작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앞으로 서방의 반이란책동과 이스라엘의 령토팽창책동이 계속되는 한 중동지역에서 포성없는 《싸이버전》이 더욱 치렬해질것이라고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조성철

ㄱ-01014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집위원회